

다중매체 시대를 맞아 그림과 글이 결합된 갈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종이책의 수요는 현격히 줄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른바 ‘이야기 산업’이 일어나 문화 관습과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의 일부이다. 참으로 변화무쌍한 이때에, 그림책을 짓고 출판하는 일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의 응모작을 보면, 다행히 그림책은 독자층이 넓어지고 제재와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어른도 좋아할 책이 늘어나고, 그림책 고유의 진실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정신도 여전히 보인다.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심사위원들은 ‘이야기의 완결성’, ‘독자 친화적’, ‘독창성과 흥미성’, ‘디자인 및 물성’ 등의 심사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각자 30권을 뽑았다. 그리고 종합 점수가 높은 31권(동점 포함)을 놓고 한 자리에 모여 다시 10권을 골랐다. 각자 좋게 보는 책을 몇 권씩 택하고, 의견이 모이는 책에 대해 논의하며 선정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다른 곳에서 상을 받은 책은 되도록 양보하도록 하였다. 그런 책을 낮추어 보거나 굳이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심사위원 모두 그런 방향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저자나 출판사의 책이 여럿일 경우 하나로 한정하였다. 10권 안에 다양한 시도가 골고루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논의 중에 저절로 함께하게 되었다.

한자리에 모여 책들을 비교하다 보니, 비평적인 말이 오갔다. 이야기의 완결성 면에서 흠족하지 않은 책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상력이 다양하고 참신한 느낌을 뚜렷이 받지 못해 아쉽다는 평, 전통적인 줄거리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은 책이 적다는 평도 있었다. 어른 독자를 의식한 책들이 노인과 아동의 이야기에 너무 매여 있다는 말도 나왔다.

10권을 뽑고 보니 무엇보다 응모작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다행이었다. 거기서 다시 대상작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렸다. 대상작이 심사 기준을 흠족하게 만족시키는 책이라기보다 흠이 적고 무난한 책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면서, 그야말로 완성도 높고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다운 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그런 작품이 있어 모두 보람을 느꼈다.

종이책이 퇴조하더라도 ‘디자인 및 물성(物性)’과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상품보다 작품이기를 추구하는 그림책의 정체성은 유지되기 바란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상상력의 혁신’이라 부를 수 있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눈부시게 바뀌는 문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사람의 의지와 꿈에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그림책다움’을 지키면서 혁신하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정성을 다해 그림책을 짓고 만드는 작가와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응모작을 보내주신 모두에게 기쁜 소식 드리지 못하는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2024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부문 심사위원 일동
최시한 집필

『가방을 열면』

출판사: 봄봄출판사

작가: 이영림

심사평: 최윤정(바람의아이들 대표)

『가방을 열면』은 1차 토론에서 여러 심사위원의 표를 얻은 작품이다. 단순하고 강렬한 색깔의 대비나 표지에서부터 작품 전반에 걸쳐 가방을 부각한 색다른 구도가 눈에 띄고, 모든 페이지에서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그 속을 다시 한번 열어 두 겹의 이야기를 보여 주는 제작 방식도 다른 작품들과의 충분한 차별성을 보여 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와 예술적 허영이 없는 설명적인 그림은 평범하면서도 유쾌하다. 이야기는 친구들과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 주인공 준우가 가방 안에 ‘비밀’을 넣고 집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비밀을 품고 길을 가는 준우가 만나는 사람은 곧 그의 가방이다. 그걸 강조하느라 사람은 트리밍되고 가방이 클로즈업되었다. 작가가 사람의 얼굴보다 그 사람의 가방 속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방이 이야기를 한다는 새로운 방식은 단박에 읽는 이의 눈길을 끌고,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저마다 다른 꿈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한 겹을 열어 볼 수 있는 가방 속의 물건들은 가방 주인의 현실일 것이고 다시 한 겹 더 열어 볼 수 있는 장면은 그들의 꿈이고 환상일 것이다. 그 발상은 신선하지만 현실이 비슷해도 다 다르게 꿀 수 있는 것이 꿈인데,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조금 더 다양하고 기발한 자극이 필요한데, 어른 인물의 가방에도 어린이 인물의 가방에도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거의 비슷비슷한 소망이 들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주인공 준우의 가방엔 특이하게도 현실을 상징하는 물건이 전혀 없이 조개껍데기가 들어있고 한 겹을 더 들추면 아마도 부모님과 함께했을 바닷가의 휴가 풍경이 등장한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이 없어서, 부모님과 보냈던 좋은 시간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뜻 다가오지 않고, 남들의 삶을 궁금해하는 어린아이다운 단순한 호기심과 잘 어우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5인의 심사위원들이 각자 다른 작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2차, 3차 토론이 길게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작품에서 보이는 사소하고도 중요한 실수에 대해서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갈렸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과 작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재쇄에서 수정할 수 있는 실수라는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론적으로 이번 심사의 기준인 ‘완성도’, ‘독자 친화적’, ‘독창성과 흥미성’, ‘디자인 및 물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 특별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도 반대로 어느 항목에도 빠지는 것 없이 골고루 무난하게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중의 한 권으로 선정하기로 하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달빛춤』

출판사: 키위북스

작가: 김지연

심사평: 최시한(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명예교수,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원장)

『달빛춤』은 ‘마고할미’, ‘운주사’ 등에 대해 알고 읽으면 더 좋다. 물론 그런 얹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꼼꼼한 독자는 그렇게 읽게 되어 있다. 그만큼 작가가 표현하려는 것이 강하고 구체적이며,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운주사는 전남 화순군에 있는 절이고, 수많은 불상과 탑이 있는 주변 산과 골짜기에는 마고할미의 전설이 전해 온다. 마고할미는 중국과 한국의 여러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창조신인 만큼 굳이 운주사하고만 연관된 존재는 아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 책은 원형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바탕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심사 대상 도서 가운데 의외로 드물어서,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책의 그림도 새롭기보다 전통적이다. 민화나 불교적 색채의 형상과 문양이 많이 등장하며, 판화 형식을 사용하여 선이 거칠고 투박한 편이다. 색깔도 검은색과 노란색 위주로 단조롭다. 그림책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다소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칼자국이 느껴지는 판화의 질감이 한국에서 다소 상징성과 이념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래저래 이 책의 개성은 집단적인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그런 것인 셈이다. 의의가 큰 시도지만, 둘의 결합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중심 사건 역시 달을 맞이하는 전래 놀이나 축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아이가 대동(大同) 세상으로 나아가는 줄거리인데, 정월 대보름, 팔월 한가위 등을 연상시키는 달이 ‘오는’ 장면이 절정부에 놓여 있다. 이미지 활용에 비해 이야기 전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사건 서술에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마음’ ‘동무’ ‘평화’ ‘하늘’ 등이다. 서로 동무가 되려는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을 연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그다지 새롭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의 전개 구조가 다소 추상적이다. ‘마음’을 강조할 뿐, 주로 마고할미가 제공하는 환상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의 완결성 면에서 아쉬운 점은, 의미를 형상화하는 면에서도 엿보인다. 거듭 등장하는 돌 모양의 그림은 도서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고인돌’과 연관이 있는 듯한데, 알아보기 어렵고 말과 그림의 서술에 녹아들 성싶지 않다. 이런 점들이 (아이나 마고할미의 말이라기보다) 삼인칭 서술자의 “우리 모두 하늘이다”라는 말, 얼핏 종교적 진술로 보이기 쉬운 그 핵심어를 더욱 추상에 머물게 한다.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 책이 가치 있는 시도, 점차 사라져 가기에 더 소중한 시도의 산물임은 분명하다. 하도 들어서 진부하기까지 하나, 이런 노력이 쌓여서 전통적이면서 새롭고 이 땅의 이야기이면서 세계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창작될 터이다. 당연한 것이 소외받는 현실에서, 작가가 나름의 스타일과 문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자라난 어린이가 가장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관계 맺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와 어떻게 말을 꺼내 인사하고 무엇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요즘은 너도나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고민이 생겼을 때 손잡아 달라고 부탁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 만남을 시도하는 일 자체가 걱정거리가 되면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면 책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뭘 하고 누구랑 놀까 조심스럽게 주저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근심을 상쾌하게 없애 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어린이는 나를 믿어 주고 어디에 가든 같이 가 주는 모험의 동반자들을 책 속에서 만나면서 용기를 얻고 실제 세계의 친구에게 말을 건넬 힘을 얻는다. 『밤이랑 달이랑』은 그런 그림책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인생을 한발 먼저 살아본 누나 ‘달이’와 신중하지만 가슴속에 모험가의 용맹함을 품은 동생 ‘밤이’가 함께 크고 작은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즐겁게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다. 『친구랑 안 놀아』, 『이불은 안 덮어』, 『하나도 안 괜찮아』, 『우유는 안 마셔』, 『내 거야 다 내 거야』, 『홀홀 도르르 마법 병원』, 『퐁퐁 사르르 비밀의 밤』의 일곱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 어려운 마음, 내 마음이지만 잘 알기 어려운 속마음에 대해서 4-5세 정도의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부드러운 대화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소통 방법을 알려 주는 그림책이면서 어린이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밤이는 무엇이든 서툴러서 실수가 잦다. 그런 밤이의 좌충우돌 수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어린이 독자에게 이 책을 읽는 큰 재미다. 아마도 많은 어린이는 책 속의 밤이와 닮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달이 누나가 된 것처럼 의젓하게 밤이의 실수를 지켜보고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밤이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인생 선배 달이 누나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달이 누나의 실수 퍼레이드도 만만치 않게 흥미진진하다. 두 사람은 하나를 내가 하면 다른 하나를 상대방이 하면서 쌓기 놀이를 하듯 차곡차곡 성장해 간다. 오늘날의 어린이에게 외로움은 이러한 성장의 재미를 함께 축적해 나갈 동료로 만나기 어려운 경쟁 학습 중심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시험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밤이랑 달이랑 어린이 인생만의 복잡한 공식을 부담 없이 마주하고 신나게 풀어 보았으면 좋겠다.

밤이와 달이는 노인경 작가가 창조해 낸 평온하고 느긋한 캐릭터다. 보통 두 명의 인물이 한 조가 되어 등장할 때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정하기 쉬운데 노인경 작가는 둘 다 조바심을 내지 않는 어린이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마음을 아름다운 이완으로 안내하고 있다. “친구가 슬프면 마술을 보여 주고 친구가 아프면 시를 써 주”라는 책 속의 조언은 어른들도 기억할 만하다. 달이가 친구를 위해서 쓰는 시 ‘유령 나라’는 어른들의 갑갑한 가슴에도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

여기에 작가 특유의 온화한 선과 투명한 색감의 이미지가 작품 속 공간을 충만하게 채운다. 어린이 둘이서

대파만 들고 돌아다녀도 짝 차는 동네를 만들어 낸 것은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부터 두드러졌던 노인정 작가의 공간 연출력 덕분이다. 생활 속의 즐거움을 그림책이 가장 잘 담아낸 사례로서 이 작품은 어린이는 물론 어린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어른 독자들에게도 오래 사랑받을 것이다.

오늘 잘 쉬었나요?

시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고, 그림은 말하지 않는 시다. 이 미덕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협업할 때는 더욱 어렵다. 『백 살이 되면』에서 황인찬과 서수연은 마치 한 사람인 듯 기가 막힌 호흡으로 말과 그림을 아껴 담아냈다. 먼저 시인 황인찬은 “백 살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리송한 말로 여백을 남겨 둔다. 서수연은 차마 말하지 않은 시인의 꿈을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상상으로 그림 속에서 이어받는다. 두 작가가 주고받는 내면의 리듬을 즐길 준비가 되었다면 책장을 넘겨도 좋다. 당신 역시 그림책에서 빗소리를, 어린이의 함성을 들을 수 있을 테다.

“백 살이 되면 좋겠다.” 그림책의 첫 문장이다. 줄지어 나는 새와 희미한 이미지가 떠다니는 연한 에메랄드빛 바탕에 명조 계열의 단정한 서체로 쓰인 한 줄의 글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비로소 뜻이 이해된다.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허공을 보고 있다. 아마도 그에게 아침은 힘이 드는 시간인가 보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체념하듯 읊조린 중얼거림이었다. 하루의 월차, 이틀의 연휴, 일주일의 휴가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인 피로를 씻어 낼 수 없다. 온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충만해질 때까지 쉬고 싶은 마음이 백 살의 소망이 되었다. 『백 살이 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독자는 사뭇 달라진다. 따뜻한 물에 온몸을 담그고 있었던 것 같다. 시멘트를 발라 놓은 양 굵은 어깨의 긴장도 조금은 풀린 듯하다. 시원한 바람을 맞고 나무 아래 한나절 앉아 있었던 것도 같다. 백 살이 되고 싶었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여기에 그림책의 다정함이 있다.

변화는 남자와 한 몸으로 붙어 있던 침대가 흩이 되고, 잠이 덜 깨 뿌옇게 보이던 흐릿한 형체가 잎이 되고 나무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때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찾아온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 물방울이 도르르 잎을 따라 구르는 소리, 비에 젖은 몸을 터는 참새의 날갯짓. 이 소리의 감각을 따라 그는 다른 곳으로 간다. 아주 커다란 나뭇가지에 앉아 있으면 다람쥐가 찾아오는 곳, 빛을 받아 반짝이는 맑은 호수가 있는 곳, 호수에서 살짝 낮잠을 자도 좋은 곳. 깜빡 잠들었다가 깨도 아직 한낮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다. 그곳에서 그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어난다. 백 년 동안 잠들었던 걸까. 그 사이 세상은 천진난만해졌다. 피곤함에 절어 있던 그는 백 년 동안 놀아도 지치지 않는 유년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다. 숲이 혹은 어린 시절의 친구가 그를 보며 묻는다. “잘 쉬었어? 오늘 기분이 어때?”

황인찬의 글과 처음에는 호흡을 맞추던 서수연의 그림은 조금씩 엇박자를 놓다가 이 순간 비약한다. 유화와 오일파스텔, 색연필과 연필 등의 재료를 혼합해 사용한 그림은 부드럽고 가볍지만, 화면을 단단하게 채운다. 별색으로 쓰인 주홍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색이 화면을 채우지만 조화롭다. 특히 후반부에서 시가 다 말하지 않은 완전한 휴식을 형상화한 장면은 독자적인 그림의 세계다. 그림 없는 마지막 장면에서 글은 “백 년 동안 쉬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고 끝을 맺는다. 그러나 그림책을 따라서 온 독자에게 “백 년 동안 쉴 수 있다면”은 이루지 못한 소망만은 아니다. 어른의 판타지란 이런 것이다.

심사평: 변윤희(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그림책 연구가)

한국을 방문한 해외 스타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떡볶이나 김밥을 먹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이나 뉴스에서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그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는 독특한 공간으로 한국의 특색 있는 문화를 경험하고 현지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 중 한 곳이다. 또한 시장은 아동교육에서 지역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장소이기에, 시장은 수많은 정보 그림책과 사실주의 그림책의 단골 배경이자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평범한 소재를 다루면서 독자에게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작가는 다른 그림책과는 차별화된 파라텍스트*와 글과 그림의 관계를 창조해야 한다.

『시장에 가면~』은 작가의 개성이 묻어나는 차별화된 구성과 그림책 요소의 활용을 통해, 자칫 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소재를 보물찾기하는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신시킨 작품이다. 그림책은 아이와 강아지가 ‘무언가’를 찾으러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출발해 남대문시장까지 서울에 있는 16개의 전통 시장을 돌아다니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작은 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거대하고 복잡한 장소이다. 이러한 아이의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느낌은 큰 판형(340 × 250 밀리미터)을 통해 그림책을 읽는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된다. 또한 상철 제본은 길고 복잡한 골목으로 이루어진 시장의 구조와 계단을 타고 오르내리는 시장 건물의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세밀한 그림과 함께 시장의 복잡하고 생기 있는 모습을 전달한다. 작가는 서울 시장의 지리적 특성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에 관해 3년에 걸쳐 성실하게 조사하였으며, 이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구현하고자 치밀한 구성의 세밀한 그림들로 시장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다섯 개의 펼친면은 여덟 쪽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 아래로 두 번 펼쳐지게 하여 주인공 아이가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내는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하여 극대화한다. 이러한 파라텍스트의 차별화와 세밀하고 치밀한 그림은 독자가 시장을 방문하여 돌아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책 전반에 글은 제목부터 본문과 연결되며 리듬을 이룬다. “시장에 가면~”이라는 제목은 본문의 “시장에 가면~, ○○○도 있고~”라는 글과 연결되어 글을 읽는 즐거움을 표지에서부터 선사한다. 제목부터 이어지는 문체의 운율감은 서체로도 표현된다. 제목에서 본문까지 주로 사용된 ‘산돌 파자마’체는 다른 텍스트와 명확히 구별되면서도 그림과 균형을 맞추며 아이코노텍스트**를 완성한다. 그림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작가의 역량도 그림책 전반의 글과 그림의 관계에서 발휘된다. 번잡한 시장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한 그림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글과 함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며, 복잡한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인공에게 고정하고 이후 주인공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이끌어 가며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렇게 글과 그림이 이끄는 대로 주인공을 따라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독자는 다양한 물건을 파는 시장 상인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시장 속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잠에서 깬 아이의 “또 없다!”라는 말은 그림책을 다시 보게 하는 장치가 된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그림책 읽기는 그림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이전의 그림책 읽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창조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
- * 파라텍스트(paratext):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인 메인텍스트(maintext)와 관계되는 요소를 뜻하며, 표지, 속표지, 면지, 판형, 종이, 제본 등을 포함한다.
 - ** 아이코노텍스트(iconotext): 그림책에서 메인텍스트와 파라텍스트가 상호작용을 이뤄 생성된 통합 텍스트를 뜻한다.
-

그림책도 이야기의 일종이므로 사건이 뼈대를 이룬다. 이 작품은 그것이 알맞고 적절하다. 사건을 이루는 ‘상황의 변화’는 새끼 제비가 비 오는 날 비행 연습을 하다가 등지에서 너무 멀리 나가 가까스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 이야기의 매력은 그 사건과 나란히, 새끼 제비를 바라보는 아이한테 일어나는 사건이 또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이는 여름 방학 동안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져 심심하고 외롭다. 이 작은 시련 속에서 새끼 제비의 쉽지 않은 도전을 보며 자기의 상황을 견디고 위로받는다. 엄마 제비가 냉정하게 대하는 새끼 제비를 돕기 위해 빗속으로 나서기도 한다.

이 이중 플롯은 공감을 일으켜 마지막에 비가 그치고 아이 엄마가 나타날 때, 독자는 아이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비 갠 뒤의 싱그러운 풍경을 배경으로 아이가 하는 마지막 말 “엄마!”에서, 효과적으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림은 항상 어떤 위치와 각도에서 대상을 재현하게 마련이다. 이 책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아이가 제비를 바라보는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때 하는 아이의 생각과 말을 따라간다. 가끔 삽입된 부감 시점의 그림은 그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며 일종의 요약 기능을 한다. 그림책의 이야기 서술 기법이 사건의 전개, 인물의 내면 흐름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어찌 보면 이 ‘사실적인’ 그림책은 평범한 면이 있다. 내용과 형식이 새롭거나 개성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골집을 배경 삼은 그림, 성장이라는 제재 등도 교과서류에서 자주 본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나 제비의 똥이 아이 머리에 떨어지는 클로즈업 장면처럼, 이야기를 맺고 풀면서 사건과 심리의 흐름을 전개하는 솜씨가 돋보인다. 이른바 ‘스토리 산업’이 환상적인 사건과 자극적인 표현을 무기로 가상공간을 점령한 현실에서, 이 책의 이러한 점은 미덕으로 여겨진다.

다중매체가 스토리텔링에 혁명을 일으켜 이야기 갈래 전반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관습이 무너진 자리에 아직 새로운 문법과 규범은 자리잡지 못한 듯하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어찌면 항상 그래 왔는지 모르나, 그림책이 자연 언어와 그림 언어를 합하여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통일성을 얻는 일은 항상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보람을 얻고 있다.

심사평: 한미화(어린이책평론가)

마지막에야 알 수 있는 여름의 향연

그림책은 여름과 겨울을 사랑한다. 두 계절을 소재로 한 그림책은 온도 말고도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겨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그리움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처럼 쓸쓸한 주제를 품을 때가 많다. 반면 여름을 앞세운 그림책은 에너지가 다르다. 활기가 넘치며 뜻밖의 만남을 준비한다. 이런 활력 때문에 우리는 여름 그림책을 좋아한다.

신성남 작가의 『여름의 선』도 여름 그림책이다. 하지만 비슷한 소재의 그림책에 비해 새롭다. 여름의 휴가 혹은 여름의 첫사랑을 담아내지 않았다. 여름마다 흔하게 볼 수 있으나, 결코 유심히 살핀 적 없는 것들을 세심하게 그려냈다. 보통의 그림책과 구성도 다르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단막극이 아니라 3막 구성의 장편극인 셈이다. 6월에서 8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각기 독립적인 세 가지 공연을 보여 준다. 6월의 이야기 속에는 독무(獨舞)를 추는 농부가 등장한다. 7월에는 남녀노소 모두 모여 군무(群舞)를 춘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해엄을 쳐서 혹은 배를 저어 강을 건너는 이들이 등장한다. 그림책이자 동시에 활기찬 여름의 퍼포먼스라 할 만하다. 당연히 보통의 그림책에 비해 페이지가 많다. 무려 76쪽이다.

지루할 법하지만 작가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디테일을 사용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림책의 판형은 200 × 205 밀리미터. 정사각형에 가깝다. 게다가 펼친면의 왼쪽은 온전히 글이 차지한다. 오른쪽은 일관되게 그림의 자리다. 마지막에야 펼친 장면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의 일부분을 클로즈업해서 확대해 보여 주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재빨리 실체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가 역시 작고 제한된 화면을 사용해 대상의 일부를 보여 주는 전략을 취한다. 덕분에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대상을 적당히 감출 수 있다. 독자는 “이게 뭘까?” 하는 호기심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게 된다. 6월에서 7월로, 다시 8월로 무대가 바뀔 때 바탕색의 변화로 장면 전환을 이뤄낸 것도 영리한 연출이다. 특히 별색을 사용해 한여름에만 볼 수 있는 짙은 자연의 색을 보여 준다. 왜 이토록 짙은 노랑과 연두와 초록이 필요했는지는 마지막 페이지에 가야 알 수 있다.

『여름의 선』에 담긴 글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다. 절제된 시어와도 같아서 음미하는 즐거움이 있다. 6월은 “달이 노랗게 익는 달”이고, 7월은 “바다가 마음을 여는 달”이며, 8월은 “매미가 짹 짹 짓는 달”이라는 시적 표현도 아름답다. 글과 그림은 마주보며 일대일로 호응하는 듯하지만, 결정적으로 알쏭달쏭하다. 마지막을 알지 못할 때 독자는 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된다. 이 모호함이 독자를 멈추어 서게 하고 글과 그림을 곱씹게 한다.

그림책은 종이책의 마지막 수호자로 불린다. 책이 지닌 물성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판형, 더스트 커버, 종이는 물론이고 가름끈이나 다이 컷(die-cut) 기법도 그림책을 전개하는 모티브가 된다.

『여름의 선』에는 ‘선(線)’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여타의 책에서 등장한 것과 같은 선은 아니다. ‘따로 또 같이’의 미덕을 살려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선을 보여 준다. 세심한 관찰력과 상상력으로 여름을 다룬 독특한 그림책이 탄생했다. 이토록 애써 그 마지막을 숨긴 이유를 꼭 찾아보시길!

최근 십여 년간 한국 어린이책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는 단연 그림책이다. 독서 인구가 줄고 출판가는 불황을 거듭해도 그림책은 출간 중 수가 줄어들지 않고 독자층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름답고 수준 높은 그림책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른들에게 위로가 되는 훌륭한 그림책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어린이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단순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백 권의 심사 대상 도서 중에서 5인의 심사위원들이 뽑은 좋은 책은 두 표 이상을 얻은 책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다양했다. 아무래도 예술성이 뛰어난 책, 기획이 돋보이거나 담고 있는 의미가 풍부한 책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1차 심사 대상에 올라온 도서 중에는 그림이 탁월하고 만듦새도 훌륭하지만 서사가 분명하지 않아 독자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모호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아무래도 독자의 양적 질적 성장보다 작가나 편집자의 역량이 덜한 게 아닐까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을 가능한 한 어린이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오리는 책만 보고』는 여러 표를 얻은 작품이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걱정이 만연한 요즘 세상에 자칫 책 읽으라는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소재를 작가는 웃음이 터져 나오도록 재미있게 그려 냈다. 배경이 거의 생략된 간결하고도 유려한 그림과 긴장감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서사가 충분히 ‘즐거운 책’을 탄생시켰다. 작가는 “오리는 책만 보고”라는 한 마디 문장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고 페이지가 넘어감에 따라 적절하게 변주하여, 말을 배우는 나이에 있는 유아의 인지발달과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하였다. 글이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 비해서 그림은 역동적이고 풍부하여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다.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하면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가가 별로 많지 않은 현실에서 반갑고 희망적이다. 게다가 의미 있고 감동적인 작품은 비교적 흔한 반면,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작품이 드문 우리나라 아동문학 출판의 상황에서 재미와 웃음을 담은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도드라져 보인다.

이 작품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이야기도 그림 스타일도 비슷한 작품들이 생각나서 이 작품만의 독창성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2차 심사 토론에서 심사위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역시 이 작품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겁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녔다는 것에 의견이 모여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으로 선정하였다.

『자, 맡겨 주세요!』

출판사: 비룡소

작가: 이소영

심사평: 김지은(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그림책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그림책에도 물리적 크기와 제작 방법의 한계가 존재할 뿐 상상의 경계선은 없다. 『자, 맡겨 주세요!』는 상상의 경계를 마음껏 확장하여 일상생활 세계의 시공간 구조는 물론 인간과 동물의 공생 원리와 생태적 환경까지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 작품이다.

“뭉든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어서, “오! 소리가 날 만큼 모르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는” 오 박사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 세상 고민은 다 상담 가능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 가능하며 무엇이든 발명할 수 있는 오 박사 캐릭터는 고전 SF에서 꾸준히 등장했던 척척박사들의 모습과 닮았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딘가 다르다. 20세기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부엉이 박사 부리부리 박사님은 너그럽고 호방한 인물이지만 이 작품 속 오 박사는 고객이 찾아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는 일 중독자이면서 매끈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일에 능숙한 비즈니스맨이다. 그의 일정표는 수많은 방문자의 예약 약속으로 꽉 차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를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최고의 VIP들은 흰올빼미, 반달곰, 바다거북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점이다.

이소영 작가는 이 세계의 가장 탁한 부분을 투명하고 맑은 수채 그림으로 표현해 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직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바쁨의 원인을 살펴보게 만든다. 겹쳐진 붓 자국 안쪽을 잘 보면 수채 그림의 본래 밑그림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듯, 이소영 작가가 만든 화사한 이미지 안쪽을 찬찬히 살피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공동체의 비극적 운명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 박사가 뭉든지 척척 해결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웃으며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불안이 책 읽는 사람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오 박사처럼 바쁜 우리 인간들은 바쁨이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살고 있다. 바쁨을 앞세워 자신과 세계, 공동체의 향방에 대한 성찰을 기피해 왔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오 박사를 통해서 독자는 지금 공멸의 위기를 만든 것이 누구인지 떠올리게 된다. 그에게는 ‘상담 완료’가 중요했고 상담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다. 절박한 상태에서 오 박사를 찾은 동물들은 대기 번호를 받고 뒤로 더 뒤쪽으로 한없이 밀려난다.

이 책 속에는 여러 가지 풍자 코드가 들어 있고 그 부분을 살피면 더욱 긴장감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다. 거리에 내놓은 냉장고는 곡선형의 아름다운 디자인이지만 그 브랜드는 미세먼지 가득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들 거북이가 태어납니다”라는 소개가 붙은 바다거북 알 전용 냉장고는 성차별로 인해서 발생한 저출생의 현실을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려고 하는 영혼 없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건조한 피부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코끼리탱글물광수분팩’을 보내 해결하겠다는 오 박사의 계획과 일회적 의지는 그 앞에 선 코끼리들의 수척한 눈망을 이미지와 나란히 놓여 있다. 이 장면은 독자의 근본적인 선의지, 양심의 범정을 공격한다. “간단합니다. 피부가 다시 촉촉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오 박사의 말은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로도 읽힌다.

“배부르고 맛있으면 되는 거”라는 오 박사의 비대면 상담 메시지가 먹이가 없어 이리저리 헤매는 북극곰에게 도착하고 바다표범 통조림을 북극으로 배송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실행될 때, 우리는 아무리 배부르고 맛있게 먹어도 결국 공동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비극적 사태를 깨닫는다. 결국 지구 위기 시계로 끝나는 이 그림책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약간의 거리를 둔 채 흥미로운 서사로 재현해 내면서도 그 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움직이는 데 성공한다. 즐거우면서도 전혀 즐겁지 않은, 그래서 뜻깊은 그림책이다.

출판사: 윤에디션

작가: 김윤정(글)/ 최덕규(그림)

심사평: 변윤희(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그림책 연구가)

여러 아동문학 이론서가 가장 중요한 아동문학의 가치를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독특한 장르적 특성상 메인텍스트*인 글과 그림과 파라텍스트**의 관계가 다양하다. 그로 인해 그림책은 작가의 표현이 다양하고 독자의 해석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진다. 이러한 그림책의 성격으로 인해 독자는 읽기와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내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림책 작가가 그림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파라텍스트와 메인텍스트에서 각각의 요소를 잘 사용한다면, 그림책은 통합예술로서의 매력이 극대화되어 독자에게 읽는 동안 발견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윤정과 최덕규의 『접으면 FOLD AND UNFOLD』은 그림책 장르의 특성을 잘 이해한 작가가 독자에게 어떤 유희를 선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국내 제본 가능한 최대 크기로 제작된 세로로 긴 판형(235 × 354 밀리미터)의 표지에는 한국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모시종이를 사용하였다. 종이의 특성이 가지는 표면의 거친 질감을 만지며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촉각, 시각, 청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또한 본문에는 책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페이지마다 누름선의 후가공 처리를 하였다. 독자는 누름선의 안내에 따라 종이를 접고 펼치면서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를 발견한다. 이렇게 본문에서 누름선이 있는 오른쪽 페이지의 절반을 접고, 글을 읽으며 접었던 페이지를 펼치는 반복적인 행위는 독서 과정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고,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독서의 즐거움으로 이끈다.

파라텍스트의 촉각적이고 시각적인 유희에 비해 그림책의 주제는 가볍지만은 않다. 이 책은 삶의 순환과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무채색의 배경은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의미하고, 책장을 접고 펼치면서 ‘시작’을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유채색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뒷면지는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접을 수 있게 하여 앞면지와 뒷면지가 서로 순환하는 형식으로 자연과 생명의 순환과정을 담았다. 또한 그림책을 읽으며 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이 ‘삶의 순환’이라는 주제에 도착하도록 이끌어간다. 이렇듯 이 책은 그림책 작가가 그림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림책의 모든 구성 요소를 활용할 때, 독자가 파라텍스트와 메인텍스트를 통해 어떠한 창조적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 메인텍스트(maintext): 그림책에서 본문이 되는 글과 그림을 뜻한다.

** 파라텍스트(paratext):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인 메인텍스트(maintext)와 관계되는 요소를 뜻하며, 표지, 속표지, 면지, 판형, 종이, 제본 등을 포함한다.
